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선언 전국학부모 기자회견



우리회는 2013년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선언 전국학부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한 학부모들은 “역사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사회에서 성장하는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왜곡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할 수 없다”는 규탄 발언을 하였다. 앞으로 학교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와 함께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제 32차 학부모포럼 교육부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우리 회는 2013년 9월 25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교육부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제 32차 학부모포럼을 열었다. (토론회 내용정리-5면)

교육부의 기만적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



2013년 9월 24일 오후 1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 권역별 공청회(3차)」가 열렸다. 특권학교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청회장 앞 로비에서 교육부의 기만적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청회장은 자사고 등 특권학교 학부모 수백명이 점거농성을 벌였고, 이날 공청회는 결국 무산되었다.

교육공공성을 찾아서 ⑦ 마을에서 학교 만들기, 학교에서 마을 만들기

{ <편집자 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마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마을과 학교가 있다. 전라도 영광 묘량중앙초, 제주도 남읍초 금산학교마을, 경기도 광주 성수중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광주 성수중 이야기는 광주시 허락을 받아 광주시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요약해 실는다.) }



행복한 작은 학교 만들기, 4년의 여정과 희망

더불어 행복한 농촌을 꿈꾸며 전남 영광으로 귀촌한지 7년, 그 당시 삶을 옮기면서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것은 두 아들이 다닐 학교였다. 가급적 거주할 집과 학교가 가깝고 도시의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보다는 농촌의 작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 생각했기에 현재의 이곳으로 정착 할 수 있었다. 물론 결정의 과정 속에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8살, 4살이던 장난꾸러기 두 아들은 시골 생활은 물론이고 당시 전교생 23명이던 학교에서 재미나게 잘 적응해 갔다. 이제 큰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다.

귀촌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무렵인 2009년 중순, 학생 수 감소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공문이 왔고, 몇 차례의 대책회의를 끝낸 뒤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의 폐교는 지역의 몰락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 아이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것에 동의하여 학교 살리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몸담고 있던 여민동락공동체도 지역을 살리는 길에 함께하기로 해 2010년 작은 학교 살리기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복한 작은 학교 만들기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고 수소문 했다. 아이들을 다른 곳에 보내던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외부에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을 만나 작은 학교의 장점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2주전 12명이던 학생 수가 기적적으로 23명으로 늘어 2년의 유예기간이었지만 간신히 통폐합을 면했다.

이후 곧바로 학생들 통학을 위해 15인승 봉고 차량을 구입해 등하교 자원봉사를 비롯해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필두로 지역민들을 설득하여 '작은 학교 만들기 기금'을 조성하였다. 학생 전원에게 예체능 학원을 보내주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들도 진행하였다. 2년차부터는 밤에도 열리는 학교를 열어 국선도, 제과제빵, 한지공예, 천체과학교실, 탁구 등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결손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이전에 없던 가야금, 연극, 풍물 등등 다채로운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대안 생태 체험 등을 개설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고, 각 분야에서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어 2011년 말 전남교육청 평가 결과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 모든 것은 100%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곳은 여타의 작은 학교 성공사례와 달리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학교 살리기였다. 그러다 보니 학교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가 필수였다. 지극히 평범한 농촌지역 학부모들과 교사들로 시작했기에 더욱 절박했고 서로가 소중했던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사·학부모 연석회의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참여의 기회와 공간을 확보해주고 스스로없이 의견을 구하고 반영했다.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고 그들이 소신껏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지원단을 꾸려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었다.

또한 그 어떤 것으로든 아이들이 낙인 받지 않고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로 만들고자, 입학 또는 새롭게 전학 오는 학부모들과 위 내용을 담은 학부모 수칙을 만들어 끊임없이 약속하고 공부를 했다.

진정한 소통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작은 학교, 물론 다소 지루하고 인내를 필요로 할 때도 있지만 3년의 과정 동안 어렵게 하나씩 이루어놓은 소중한 성과들이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작은 학교 이기에 가능했다.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약하여 수평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소통의 통로와 방법 등

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물론 행복한 작은 학교 만들기의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사회의 어려움이 큰 제약으로 작용했지만 더 컸던 건, 과거 두 번의 학교 통폐합 문제로 지역이 두 개로 갈라져 갈등과 반목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그로인한 절망과 부정, 불신은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게 했다. 학교 살리기의 중요 주체인 교사들 또한 초기에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 골치 아픈 문제였기에 운영위원장인 나를 피하느라 얼굴보기도 힘들었다. 교육청은 과거 통폐합 사건 이후 사실상 폐교의 수순을 밟고 있었고, 학교 살리기에 대한 반응도 없었기에 학교 살리기 2년 동안은 피를 말리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어찌되었든 하늘이 감동한 건지 올해도 입학생과 전학생 문의가 폭주하여 학교 살리기 초기 12명에서 이제 46명이 되었다. 물론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선 적은 숫자이지만 교실 수 부족과 통학차량의 한계로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져 학교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학교 살리기 4년, 속단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도 헤쳐 나가야 할 과정이 수없이 많다. 더욱 내실 있게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좋은 선생님들도 지속적으로 오셔야 한다. 그리고 현재 농산어촌 작은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 지자체의 발상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

농산어촌의 수많은 작은 학교는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보물창고다. 마음만 먹으면 도시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가능하고, 학교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합의 과정의 용이성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환경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유력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권혁범 (전남 영광 묘량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마을에서 살리 학교, 남읍초등학교



제주 남읍초등학교는 1946년 개교되어 1960년대 말 학생 수 350여명이 넘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산업화의 발달로 이농현상이 생겨나고 1991년도에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분교장 격하(통폐합 대상)가 된다는 교육당국의 통보에 마을 주민은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며 1991년도부터 학교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 살리기를 성공한 원조 마을이 되었다. 빈집 빌려주기 운동, 시내로 이사 간 리민을 대상으로 남읍초등학교 다니기 권유를 하면서 실제 시내에서 남읍초등학교까지 태워다주며 명맥을 유지했다.

1996년 마을총회에서 다가구주택을 짓기로 결의하고 마을소유 땅 등을 팔아 1997년도에 19세대, 2002년도에 12세대 등 전국 최초로 빈집 및 공동주택 31세대를 마련하고 초등학교가 있는 가정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다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2015년도가 되면 학생 수 60명 이하로 떨어져 분교장 격하가 된다는 또 한 차례의 교육당국의 통보에 마을주민들은, 이번이 학교 살리기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중장기 발전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살리기 다세대 주택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을주민 및 출향인사들의 대대적인 동참 하에 11억 5천 25만원이라는 거대한 성금이 모였고, 여기에 마을소유의 땅 1648㎡(3억 6천 5백만 원 상당)를 주택부지로 내놓았다. 이 같은 남읍리민들의 노력에 제주도에서도 6억 원을 지원했다. 우리마을소유 속칭 사장밭(마을의 공동소유지)에 총 21억 5천

만 원을 투자해 4동 24세대(66㎡형)의 금산학교마을을 지었고 도외 9가구 38명을 포함해 24가구 104명(초등생 37명)이 입주하였다. 다세대주택 착공식을 갖고 8개월의 공사 끝에 2012년 9월 19일 여러 내빈과 리민, 출향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읍리 사장밭에서 ‘남읍초등학교 살리기 금산학교마을 공동주택 준공식’을 가졌다. 지금은 농촌지역의 초등학교로서 학생 수 걱정 없는 마을이 되었다. 학생이 늘어나 학교만 산 것이 아니라 주민도 100여명이 전입해 학교도 안정되고 마을도 안정되었다.

현재 총 56세대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며 우리 마을의 문을 활짝 열어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마을과의 차이점은 회의문화에서도 나타난다. 금산학교마을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주민들도 회의의 결과의 뜻을 따르는 향회 시범마을이다.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 우리 마을과 학교에서는 물론 행사시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금산학교마을은 서로 소통하며 지내는 마을이다.

진석완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이장)

마을과 함께 발전하는 학교, 마을공동체 평화학교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있는 광수중학교가 ‘마을공동체 평화학교’를 지향하겠다고 지난 3월 학교 강당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1961년 2월 광주중학교 분원분교로 출발한 광수중학교는 올해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퇴촌 지역은 광주의 옛 정서와 농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토마토 축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평화학교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미래 시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마을공동체 정신을 길러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은 좋은데, 광주와 퇴촌에 대한 애정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인재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는 광수중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가 담장 밖으로 나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평교사 시절부터 장재근 교장선생님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거리상 분당이나 강남과 가깝습니다. 하지만 퇴촌면은 광주에서도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학력이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학생의 15% 가량이 조손 가정이나 결손 가정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고,



장재근 교장선생님이 마을공동체 평화학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입시 위주의 학업 성적 올리기에만 몰아넣을 수도 없습니다. 마을공동체 평화학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마을공동체 평화학교라는 개념만 잡았을 뿐입니다. 마을공동체 평화학교의 내부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는 학교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제 역할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어디에 지을지 장소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소를 정하면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멋진 집을 짓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장재근 교장선생님은 마을 주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발로 뛴 생각입니다.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마을공동체 평화학교를 알리고, 더 좋은 생각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광수중학교는 학교의 여러 가지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마을 주민 모두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가정 방문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과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선포식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과 평화교육을 담당할 외부 전문 기관과 협약도 맺었습니다.

광수중학교는 이 밖에도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공개적 공동체 수업, 학부모 대상 평화교육 연수 등을 실시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학교가 소통하는 광장을 마련해 갈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와 평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방과 후 어느 곳에서도 마을, 공동체, 평화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광수중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길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갈 뿐입니다. 마을문화가 변해야 아이들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고민에 광수중학교가 앞장서겠습니다.”

광수중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 공동체, 평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인재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새로운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수중학교는 이미 광주시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학습과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가하는 독서 프로그램 ‘달빛 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수중학교가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평화학교와 더불어 발전할 퇴촌면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출처] 광주시 블로그

<http://blog.naver.com/gjcity/120187169344>



학부모 활동 시리즈 ⑥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시작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의 역할 변화 모색 - 학교에 첫 발 들여놓기

나는 학부모 5년째로 초보 학부모 딱지를 떼지 얼마 안 되었다. 그 동안 학교에서 책임어주는 일과 단체의 장으로 일을 하였고, 지금은 2년째 학부모회장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2008년 아이가 입학하던 해 학부모 활동은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 급식검수 봉사단체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학부모자원봉사 활동이 생기면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 우리 학교를 좀 더 소개하면 경기도 소재의 일반초등학교로 학부모회를 꾸린 지 어느덧 4년째로 2010년부터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노력과 2013년 제정된 학부모회 조례를 통해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 학교 학부모회는

첫째, 학교에 학부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학부모실이 있다는 것은 학부모가 모여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학교와 학부모회의 협력이다. 올해 학부모회는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아빠와 함께, 전통놀이, 정원 가꾸기, 식생활 교육과 요리교실 등을 계획·진행하고 있으며 학기 중 책임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통신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활동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대의원회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할 수 있다. 매월 진행되는 대의원회에 학부모운영위원이 참여하여 학교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학부모의 학교 이해도가 높아졌다. 학부모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를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들은 학부모들과

소통을 통한 자정능력을 갖게 되기도 한다.

다섯째, 교사들이 학부모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이다. 학부모회 초반에는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교정에 자주 드나들면서 교사에 대한 간섭이 생기지는 않을까하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존중하려는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

그동안 학부모는 육성회, 자모회 등의 이름으로 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에 참여하거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당된 일을 해야 하는 등 불분명한 일들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생각이 변화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2010년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생, 학교, 학부모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비전을 세웠다. 2010년부터는 '학부모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모니터링, 학부모연수, 학부모자원봉사에 사용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밖에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각종 소위원회(교과선정위원회, 교원평가위원회 등)를 두어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도록 학부모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교육 평가의 한 지표로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포함되도록 추진하였다. 그 밖에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 내용에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회 회장인데 학부모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수 있는가?"라거나 "불법찬조금을 걷지 않고도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상담이 늘었다. 이렇듯 학부모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담을 하며 학부모 역할을 건강하게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회 조례 제정으로 변화하는 학부모회

경기도는 2013년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일체화되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학부모회는 학년별, 학급별, 기능별로 조직하여 학부모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주체적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학부모의 자원봉사 활동도 학교특성과 학부모 다양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활동으로 넓혀 참여자가 의미 있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조례에 재정지원에 관해 명시해 놓아 불법찬조금을 근절할 수 있다.

학부모 임원에게 집중되는 업무

오늘날 학부모는 학부모자원봉사 외에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소위원회를 두어 학부모가 참여하는 범위가 다양하고 넓어졌다. 참여가 다양하고 넓어진 만큼 참여하는 학부모 숫자가 늘었을까? 대다수의 학교가 위원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로 학교에 관련이 있어 연락이 가능하고 회의가 수월한 학부모를 찾는다. 또 많은 회의가 낮 시간에 진행되다보니 맞벌이 학부모이거나 아빠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참여자를 찾지 못하고 학부모회 임원, 운영위원 등 소수에게 일이 집중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학부모에게 많은 일이 주어지다보니 쉽게 지쳐버려 학부모자원봉사의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는 학기 초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을 받거나, 회의를 저녁시간으로 옮긴다면 각 분야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전문가가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 봉사를 하고 있다. 활동 대부분은 방과 후 또는 도서관 등으로 교실의 변화와는 무관한 듯 보인다. 교실 밖의 변화가 교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학부모가 교육 협력자로 느끼지는 못한다. 이제는 교실의 변화를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의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만남의 자리가 꼭 필요하다.

앞으로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자원봉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도에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 교사, 학부모 사이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인 (고양시 성라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제 32차 학부모 포럼

교육부 대입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제 32차 학부모 포럼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간소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의 지부장들이 참여해 정책위원장이 방안을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 적용
... 폐지해야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적용은 폐지해야한다. 수시모집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중심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골라 뽑는 장치로 수능 성적과 연계하고 있다. 정부 방안에서 대학들이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논술도 준비해야하고, 학생부도 게을리 할 수 없고, 마지막 수능도 준비해야하는 것이다. 대학들의 성적 우수 학생 골라 뽑기 관행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학별 고사
... 사교육 유발의 원인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간소화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3,000가지가 넘는 전형방법 명칭을 학생과 학부모가 알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입학전형을 간소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대학별 고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상당하다. 대학별로 출제되는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고등학교에서 이를 준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 기관에 발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골라 뽑기 위해 대학별 고사를 활용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개선안에는 대학별 고사를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선에서 한발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출제하는 논술 시험을 교육부가 무슨 수로 간섭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EBS 논술강좌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매우 옳지 않은 해법이다.

입학사정관 전형
...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만 바뀔

교육부 방안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9월 23일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밝혔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 크게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문제점은 어떤 영역을 어떻게 얼마나 반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들의 교과 성적외에 비교과 영역까지 입시에 활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반영
... 내년부터 성취평가로 내신 산출
(대입반영은 2019부터)

당장 내년부터 학교에서는 성취평가(A, B, C, D, E)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그러나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하고,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을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학교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무엇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능체제 문·이과 통합안
... 문·이과 구분 불필요

기본적으로 문과와 이과 구분하는 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수능 체제도 문·이과 완전 통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문·이과 완전 통합안은 수능에서 모든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전제는 국, 영, 수에 대한 난이도와 시수 감축이다. 현재 교육과정을 대폭 손질한다면 문·이과 통합안은 수능시험 성격을 대학 입학자격고사와 흡사한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 수능의 성격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성격으로 변화해야한다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은 불필요하다. 현행 수능은 변별력만을 강조해 누가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는 체제로 아이들의 수능 피로도와 부담감이 매우 심각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가중시켜왔다.

대입원서접수시스템
... 한장의 원서로
진학·취업·진로·장학까지
연계돼야

현재 60만 수험생은 대입원서를 제출할 때 진학사와 유웨이라는 사교육업체의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어있다. 원서를 제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상당량의 정보를 쓰게 된다.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사교육업체 사이트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정부가 이런 방식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번 방안에는 장기과제로 대입원서 접수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했다. 원서접수 시스템은 하루 속히 만들어야한다. 영국의 원서접수시스템(UCAS)처럼 한 장의 원서를 쓰면 진학, 취업, 진로, 장학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 박이선 (부회장·정책위원장)



학교폭력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 회복적정의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작년 초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종합대책은 엄벌주의, 무관용주의로 일관, 엄한 처벌로 인해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를 통한 갈등해결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단계로 조정전담기구에서 화해권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를 실시하는 학교는 징계건수가 크게 줄고 학생들의 관계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회 상담실에서는 갈등해결 조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피해-가해학생 대화모임 조정자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상담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바라보는 조정전담기구에 대한 이해

경기도 교육청, 조정전담기구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전 단계로 '조정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는 중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전담기구란 학교폭력 사안 중에 경미한 사안을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주로 학생부장)로 구성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담임교사가 사안을 확인,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합니다. 화해가 성사되면 '담임교사 종결사안 확인서'를 작성하고 종결합니다. 담임교사 선에서 종결 되지 않을 경우 전담기구로 넘어가게 되고, 전담기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사안종결보고서'를 작성, 사안을 종결하게 됩니다.

올해 전담기구가 보강되면서 학폭위가 열리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과 2013년 학폭위 학부모위원(이하 학부모위원)으로, 전담기구가 생기기 전인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여 학교가 학교폭력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자리였으면

작년 학폭위 상황을 돌이켜보니 학교폭력종합대책이 살얼음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2년에 처음으로 학부모위원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두 명의 학부모위원과 다수의 학폭위 교원위원(이하 교원위원)이 학폭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압니다. 짐작컨대 거의 교원위원들이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2011년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을 50% 이상(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6명 이상이 학부모위원이어야 함) 재배치하라는 지침이 동년 11월에 마련되면서 학부모위원이 교원위원보다 많아졌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학부모위원이 나왔는데, 다수의 학부모위원이 들어가면서 학부모회장인 저도 학교 추천으로 학부모위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폭위 위원이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부모위원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사안에 대한 보고서가 당일 학폭위 위원들에게 배부되고, 주로 학생부장의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학부모위원들은 엄마의 심정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교원위원들은 처벌에 대한 행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이해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신들의 입장을 발언하는 자리여야 하는데도 사안조사가 끝났으므로 처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위원은 이 자리가 불편하기만 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하는 자리였으면 하는데 그런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설혹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해학생을 용서하고 싶다는 발언을 해도 가해자가 용서를 빌 기회도 주지 않을 만큼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법보다 무시무시합니다.

우선 제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폭력법을 너무 모른다 싶어 학교폭력법을 공부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 학부모위원들과 함께 학교가 학교폭력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학교에서 다루는 절차가 천차만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법에서의 처벌로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 치유 안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느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를 마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용서하는 자리를 마련해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해도 피해자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과 피해학생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법에서의 처벌은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도구일지 몰라도 피해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학부모위원의 역할은 행정적인 처벌을 내려야만 하는 교원위원들과는 달리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법을 교원위원들보다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에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로 곤혹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한 번의 학폭위로 한 아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는 학폭위를 여러 번 참여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교육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실시한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 조정자 훈련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작년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처벌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 교육적이고 회복적인 방법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마음을 보살피고 살펴줘야 합니다.

전담기구 시행 뒤 학폭위 개최횟수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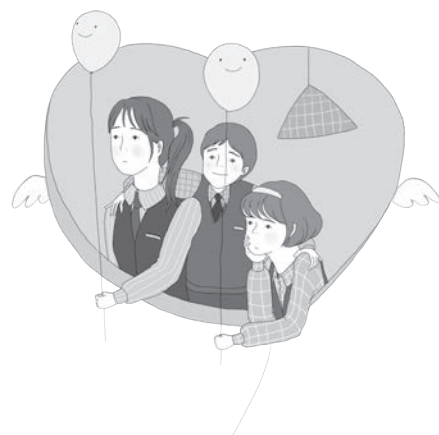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올해는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고 있는 전담기구 덕에 학폭위가 열리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담기구는 학폭위를 개최하기 전에 여러 각도로 사안을 조사하고 화해하는 장치입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담임종결사항이나 전담기구 종결사안은 년 4회 학폭위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허술한 점을 보강하여 어느 누구도 외려 학교폭력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 진

(2013년 성남교육청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

2012~13년 삼평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2013년 수내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회복적 정의를 통한 생활교육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광수중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죄와 정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생활교육'을 도입하여 올해부터 실천하고 있다. 현재 법원이나 일부 사법제도 안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적 정의'모델을 학교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적 정의에 기초한 실천 모델로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광수중학교가 위치한 퇴촌지역은 유입인구가 원주민의 3배가 넘는다. 옛 농촌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情)을 느끼기 힘든 상황이며, 해가 갈수록 이질적인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대부분의 유입인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난 경우라 학교폭력의 원인 중에 해체된 가족 관계에 따른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전통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오던 인간관계 형성이나 건강한 위계질서 개념이

약해지면서 동급생, 선후배간의 왜곡된 위계질서, 통제 등으로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왔다. 광수중학교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 학생을 징계를 주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던 학부모들이 자진해서 '회복적 정의'연수를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녀들과 부모 관계, 학교 문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학교가 회복적 정의를 기초로 생활교육을 해보는 게 어떨까?'고 제안을 하였다. 이를 장재근교장선생님께서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올해부터 학생, 교사, 학부모가 회복적 정의에 관한 연수를 듣고, '회복적 정의를 기초로 한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회복적 정의에 대해 받아들이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현재의 폭력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복적 정의' 연수를 듣게 되었다. 물론 일부는 학

교장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듣기도 했다. 지난 5월 회복적 정의 연수과정의 하나인 '서클대화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터놓게 되었고, 이를 학급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회복적 정의 교사동아리'를 결성하였다.

'회복적 정의 교사동아리'를 중심으로 생활규정 위반이 심각한 7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회복적 대화모임을 처음으로 가졌다. 총 5차에 걸쳐 20시간이 넘게 대화모임이 진행되면서 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어 했다. 하지만 대화모임 후에 변화된 학생들의 표정, 생활태도, 학습의욕 등을 보고 회복적 생활교육이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크고 작은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회복적 대화모임이 필요한가?'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고 간다. 하지만 다들 회복적 생활교육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기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화모임의 조정자로 홀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변화에 학부모들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어, '마을공동체 평화학교'를 지향하는 광수중학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기대한다.

백원석 (광수중학교 혁신부장,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육경력 14년의 교사입니다.)



학교폭력의 해결은 수용·이해·진정성으로부터

현재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이다.

학교폭력은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누가 묻는다면 고민 없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학교도 구조화된 사회고,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현상이 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학교폭력을 없앨 수 없다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학교폭력을 최대한 줄이고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일 것이다.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강도가 심해지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처벌의 강화다. 한 예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들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으로 일부분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가해학생이 처벌 받는다고 해서 피해 학생이 받은 고통이나 상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학생이 제일 원하

는 것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인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학생 처벌보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에 우선권을 둔 화해조정이다. 담임, 학년부장,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중심이 되어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가해학생과 학부모님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화해 조정의 시간 속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고, 가해 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인 겪게 되는 아픔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게 된다. 중재의 노력은 때로는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오해도 계속적 화해의 노력 속에 이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2012년 겨울에 '학생생활지도 과정'이라는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학생생활인권부장이 되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또 경험 부족으로 고민이 많은 시기에 받은 연수였다. 여러 가지 연수 내용 중 특히 기억나는 부분이 바로 '생활지도의 토대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며, 이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래포의 형성'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이 래포 형성의 핵심기제는 긍정적 수용, 공감적 이해, 진정성이며 이 세 가지 형성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 생활지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학교폭력도 이 맥락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가해학생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수용하고 공감하며 이해할 때 불신의 관계가 아닌 믿음과 신뢰의 관계, 용서와 이해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학교폭력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원기 (태평중 학생인권부장)

전주지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2013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 장소 추후공지

지부지회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 10월 10일 고양지회 창립 17주년 • 10월 24일 서산태안지회 창립 11주년
- 10월 30일 파주지회 창립 9주년

고양지회 등산소모임 '즐거운 인생' 9월 산행은 북한산 응봉능선으로 다녀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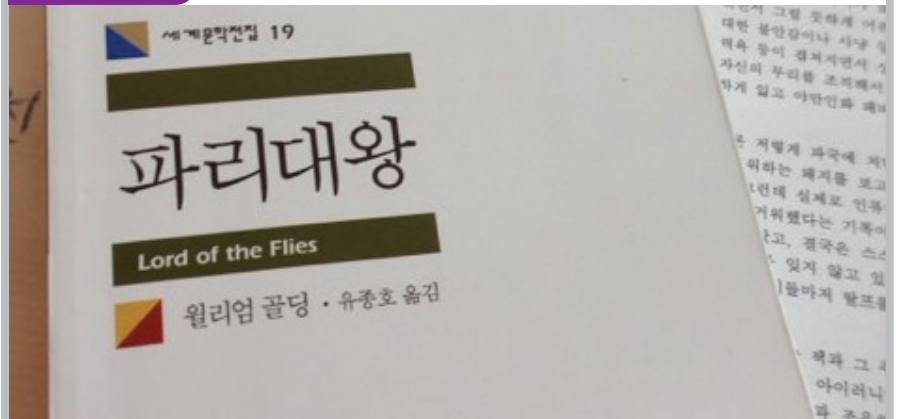
광주지부 학부모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대구지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남부지회 '고전읽기 사랑방'소모임에서 파리대왕을 읽었어요.



서울동북부지회 9월 28일 진행한 2013 어린이 인권캠프 '친구야, 인권캠프 가자'



서울서부지회 홍은동 어린이들과 전래놀이로 신나게 놀고 보물찾기도 했습니다.



성남지회 성남지회 창립 15주년 맞이 후원의 날을 열었습니다.



수원지회

수원지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워크숍

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오후7시

장소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용 : 조직진단, 7년 사업 분석 및 평가(재정상황 포함)

참여대상 : 참학 수원지회를 사랑하는 모든 회원

안양지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위기시대의 부모되기 강좌 잘 마쳤어요.



울산지부 '스마트폰 절제력과 학습코칭 강연회'를 열었어요.



의정부지회 학부모 상담원 양성교육이 열린 성원 속에 끝났어요.



전남지부 '학교폭력 예방 포럼 연극, 양들의 침묵' 공연 마무리 후



전북지부 2013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워크숍이 시작되었어요.



파주지회 남이섬에서 가을추억을 만들고 왔어요.



지부지회 소모임 - 고양지회 청소년 소모임

누리봉사단



‘누리봉사단’은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소모임 중 청소년 자원봉사단 이름입니다.

회원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8년에 덕양구에 있는 원당사회복

지회관과 함께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봉사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하였습니다. 덕양구 선유랑 마을에 있는 농촌체험학습장과 장미농원에서 가지치기와 잡초제거, 토란 캐기, 유치원 아이들의 체험을 위한 황토논의 돌고르기 등등 매달 체험장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방학 때는 별도로 논에 잡초 제거 등을 하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일산의 특성을 잘 살린 봉사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봉사의 성격을 달리하여 ‘효봉사’를 하였습니다. 매달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원당복지회관에서 제공하는 저주파기, 안

마기계 등을 작동해드리며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매번 다른 경로당을 찾아가다 보니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듯하여 2011년부터는 행신동에 위치한 강매노인회관을 정해놓고 진행했습니다. 안마와 발마사지, 혈압체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달에 생신이신 어르신들과 간식을 먹으며 생신노래도 불러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찍은 생신 사진은 연말에 인화하여 경로당에 가져다 드리면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현재 ‘누리봉사단’은 고등학생 8명, 중학생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례 (고양지회 청소년 누리봉사단 소모임 담당)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봉사



초등학교 때 나는 부모님과 주변으로부터 받기만 해왔고, 그래서 주기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니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며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점수를 적는다고 하였다. 봉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나에게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해 내 시간과 힘을 쏟는다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다. 봉사, 그건 정말 짜증나고 귀찮은 숙제였다. 그러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하기에 하는 수 없이 학교 앞 교통봉사를 하거나 방학 때 아는 분의 도움으로 몰아치기 봉사를 하며 시간을 채우는 친구들이 많았다. 당연히 나도 친구들과처럼 어떤 것이든 해서 봉사시간을 채워야지 생각했다.

어느 날 엄마가 누리봉사단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 누리봉사단은 참교육학부모회라는 시민단체와 복지관이 함께 하는 봉사단이라고 설명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망설여졌다. 엄마는 농촌 봉사활동인데 바깥공기도 마시며 농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이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하면 재미도 있을 거라고 하셨다. 썩 재미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실내보단 바깥이 좋겠다하는 단순한 마음에 놀러간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원당사회복지관 복지사 선생님의 지도아래 화훼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려야 했고, 밭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와 돌을 골라내고 뽑았으며, 익어가는 딸기 수확도 하면서 나는 농부로 산

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혀를 내둘렀다. 나의 봉사활동은 누리봉사단과의 만남으로 인해 이렇게 땀과 함께 시작했다.

다음해에는 농촌이 아니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자동안마기계 설치를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했다. 일명 ‘효봉사’였다. 그리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던 ‘효봉사’를 올해부터는 행신동에 있는 강매마을 노인회관 한곳을 정해놓고 했다.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만났을 때는 어색했지만 매달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니 어색함이 있을 리가 없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지고간 안마기계를 설치해드리면서 어깨와 손발을 주물러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린다. 맨손에 오일을 듬뿍 발라 발마사지를 해드리면 힘들다고 그만하라고 오히려 우리 걱정을 더 하신다. 또 매달 생신이신 어르신들에게 가지고 간 간식을 놓고 우리는 생신축하노래를 불러드렸다. 할머니는 고깔모자를 씌워드리면 수줍어하시

며 좋아하신다. 간식은 할머니가 매번 우리에게 더 먹으라며 양보하신다. 진짜 우리 할머니 같으시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우리 진짜 할머니를 만나고 오는 것 같다.

중학교 때부터 4년 동안 한 달에 한번뿐이지만 꾸준히 참여하다보니 이제 누리봉사단 소속으로 경로당 ‘효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내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졌다. 덕분에 나는 봉사활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해서 내 삶에서 생활화가 되는 것이 진정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서툰 활동이 다른 이들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며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4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 내가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홍다현 (정발고등학교 2학년)



상담실에서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로, 3학년 때부터 00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아이가 2학년 때 장난치다가 친구 목에 할퀴 자국을 낸 적이 있다. 상대아이 아빠가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나는 아이에게 무조건 참으라고만 했다.

4학년에도 괴롭히던 00가 같은 반이 됐다. 영어 시험 시간에 00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 것을 봤다고 계속 주장해서 우리 아이는 아니라고 하다가 친구들 눈치가 보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일도 있다. 또 급식실에서 '거지'같다며 함께 앉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그냥 참았다고 한다. 또 아이가 교과서 몇 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00도 이 일로 담임과 만났다. 내가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교실 뒷문 앞에 없어졌던 교과서가 있었는데 나는 00가 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가 피하기만 하니까 약하게 봤는지 다른 아이들도 따돌린다.

얼마 전에는 보드게임을 하는데 00가 훈수를 뒤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보드게임 말을 얹고 때렸다고 한다. 담임이 00와 우리아이 둘 다 야단쳤는데 우리 아이는 자기가 왜 야단을 맞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엄마가 학교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임에게 전화를 해 00아이 엄마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학기 초 담임과 여러 번 상담을 했지만, 담임은 아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집은 학교 운동장이 보일 정도로 가깝다. 내다 보면 우리 아이는 운동장에서도 무리와 떨어져 외톨

이처럼 보인다. 심리검사를 해보니 사회성이 3학년 수준이라고 한다. 나의 양육태도에 더 문제가 있다고 해 나도 요즘 상담을 받고 있다. 내가 조금씩 변하니 아이가 많이 달라지긴 했다. 내가 00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돼서 전화했다.


 그동안 아이가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많이 참고 지냈군요. 어머니도 담임도 자주 만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선생님이 오히려 아이의 문제로 보고 해결의지가 없어 상대아이 어머니와 직접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군요. 상대아이 어머니를 만나는 이유는 상대 어머니와 그 자녀가 아이가 겪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의 일에 대해 사과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는 말이 오고가게 되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으므로 담임선생님의 중립적 중재가 꼭 필요합니다.

어머님께서 아이가 받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에 대해 상대아이 어머니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담임 선생님이 먼저 그동안의 일과 아이의 괴로움에

대해 미리 얘기해주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대아이를 비난하지 마시고 아이의 상황과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 자녀를 피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있다면 학급차원에서도 아이들 관계를 점검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교실의 평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 실시해줄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는 것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 상태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서부터 심리적 유연성과 민감성이 발달되어야, 밖에서도 아이들이 이것을 잘 발휘하여 사회성을 개발시키고 부당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이가 혹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면 아이에게 그 불안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더 위축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큰 항구가 되셔야 합니다. 거친 풍랑을 겪고도 돌아와 언제나 정박할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두 어머니의 만남이 아이들을 위한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학교교사들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아이와 내가 너무 억울하다

 우리아이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다. 우리 부부는 교사다. 아이가 작년에 학교에서 금품갈취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에 다니다 이번에 복교했다. 작년에 학교선배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액수가 백 육십 만원이 넘었는데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이 일로 학교에 면담 신청했더니 담임교사는 병가라고 하고, 학생부장은 아이가 스스로 갖다 준거라며, 아빠가 다니는 중등학교로 전학을 보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중1로 복교한 이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편파적이다. 우리 아이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악의 없이 장난을 치는 편이다. 라이터를 가지고 여학생들 앞에서 불꽃을 크게 하여 위협 한다든가, 발을 건다든가 하는 장난을 하여 담임에게 전화가 온 적이 몇 번 있다. 복교생이라는 편견으로 아이를 보는 것 같아 불쾌하다. 아이들은 다 그렇게 짓궂은 장난 한두 번쯤 하면서 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기술 가정 시간에 아이가 어떤 질문을 했더니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식으로 심하게 야단을 친 것을 알게 되어서 기술가정 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아마 기술가정은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라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래도 학생이 질문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다.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이가 한 그 질문을 다시 하겠다”라며 아이가 물어 본 것을 물어봤다. 기술가정 선생은 헛웃음을 웃어대면서 이런 식의 행동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느냐며 할 말 있으면 내일 와서 얘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벌점 주는 것처럼 나도 학교에 대해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이를 강원도 원주 외할머니 댁에 보냈다. 오는 길에 학생부장에게 전화해 아이를 원주에 데려다 놓았으니 편견 없이 가르칠 자신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조금 있으면 장학사 면접을 앞두고 있다. 딸아이는 오빠와 같은 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체험도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대화를 나누며 산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악의 없이 한 행동에 대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편견을 갖는다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어머니도 속상하시겠지만 아이도 많이 힘든 상황이겠네요.

그런데 아이는 불꽃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나 발을 걸었을 때 상대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불안감을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이와 어머니의 입장이며 상대방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고, 그래서 발을 걸고, 라이터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마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잘 알지 못하므로 아이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야기해보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상담센터를 방문하셔서 행동수정을 받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싸우기 위해 아이를 외할머니 댁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낼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아이를 제외시키고 학교와 잘잘못을 따지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아이로 향하여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부터 하십시오. 부모님이 모두 장학사를 앞두고 계셔서 학교와의 문제해결 방식과 절차는 잘 알고 계십니다.

전화상담 : 02-393-8980

사이버상담 : 참교육학모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

상담시간 : 10:30~17:00(월~금)

회원인터뷰 : 황순미 (안양지회)

나를 돌아보고 나의 꿈을 찾는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너무나도 짧은 소개지만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올해 5월 마지막 주에 운전 면허증을 뒀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딸 둘과 함께 미국으로 한 달간의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도 일정도 없는 그런 무모해 보이는 고생을 시도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안 될 거라고 포기한 것들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고, 그것들이 얼마나 두꺼운 철문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각 주마다의 다른 교통체계와 내비게이션 부적응으로 도로 위를 돌고, 돌고, 또 돌고, 시애틀부터 샌디에이고까지 그렇게 돌고 돌며 내가 모르고 자신 없음으로 인한 공포를 즐겼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다음 목적지에 대해 의논하고, 완벽하라고 소리쳤던 저의 허점투성이인 모습을 보이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 라고 같이 동참했습니다. 매일 5시간 이상의 운전 내내 나눴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

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여행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두려움과 편견들이 어떤 문인지를 확인 했다는 겁니다. 아주 두꺼운 철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바로 3일 천하로 끝나는 종이같이 얇고 잘 뚫리는 형편없는 문이었던 거죠.

올해 3월,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를 통해 우슴터(우리들의 숨 쉬는 터전)라는 교육 고전읽기 모임을 알았을 때만 해도 그저 '열심히 책이나 읽어야지'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었고, 아팠던 상처들을 내보이며 결국에는 그 상처를 우리가 아이에게 똑같이 되물림 하고 있구나하는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저는 9살, 6살 두 딸을 두고 있는데 이번 여름은 제가 머리로 이해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학원들 모두 끊기, 소리 지르지 않기, 아이들이 정리하는 것 동의하에 집안 어지르기 허용, 아이들이 못할 거라 의심하지 말기, 남편과 잘 지내기 등등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꿈 찾기!

둘째를 낳고서야 저를 되돌아볼 시간이 생겨서 막연한 희망 하나로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지

금 배운지 5년째이고 제 나이 37인데, 이제야 작은 꿈 하나 발견한 것 같아 제 생활이 참으로 풍요롭고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이 느낌이 가족들에게 충분히 전해지고 있겠죠.

올 여름의 시도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단연코 제 자신! 다음으로는 아이들의 아이들다운 웃음과 남편의 빨라진 귀가 시간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되는 길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욕심과 허영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향해 웃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 찾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편견은 아주 얽박한 종이 문이거든요.

우리가 꿈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 과정을 보며 아이들을 그들의 꿈을 찾기 위해 열심히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고, 이게 바로 참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 참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안양지회 '우슴터'에 놀러 오시면, 저의 연주를 포함한 아줌마들의 다양한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도 있고요. 제가 바리스타 황이거든요. ㅎㅎㅎ

교육 :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혁신학교 ②

혁신학교 아이들은 왜 얼굴표정이 밝은 것일까?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학교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참 많았다. 우리 학교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들도 많은데, 우리 학교에 다녀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우리 학교 아이들이 뭔지 모르게 다르다는 것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유난히 밝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 전학을 오고 나서 틱 장애가 없어진 아이가 여럿 생겼다는 이야기, 학교 가기 싫어하던 예전과 달리 학교에 빨리 가고 싶다고 아침 일찍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들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다른 학교에서는 문제야로 찍혀서 적응하지 못할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놀랍게 느껴진다. 이것은 대부분의 혁신학교에서 있는 일로, 그래서 혁신학교

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전학을 오는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문제야'로 찍혀있던 부적응 아이들이다.

수업을 하면서 보더라도 우리 학교에는 부적응 아이들이 많지 않다. 우선 아이들 표정이 참 밝고 잘 웃는다. 기가 죽은 아이가 눈에 잘 안 띈다.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적극적이다. 호기심도 많다. 그래서 학습활동에도 적극적이고 집중하고 몰두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 아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기발랄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스트레스가 없는 선생님들과 지내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선생님들 얼굴이 먼저 환해지니까 그 다음에 저절로 아이들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들이 마음이 편하니 아이들을 다그치기보다 느긋하게 기다려 줄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교사 회의를 통해 남의 말을 듣는 태도를 배운 것이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 말도 들을 수 있게 되니까 자연히

아이들과 교사들의 사이도 가까워 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그동안 학교 교사들은 하도 행정업무에 치여서 '업무 보는 틈틈이 수업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해서 교사들은 행정업무 없이 수업과 생활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가 학교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늘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환한 까닭이 이 밖에도 쉼과 마디가 있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 학기'를 운영하고, 조소, 목공, 창의음악, 수공예 교육, 네 번의 계절잔치 같은 문·예·체 교육을 한다든지, 80분 블록수업에 30분 노는 시간을 운영한다든지, 어린이 자치를 활성화하는 다모임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모든 교육활동을 경쟁체제를 지양해서 스티커 사용과 상을 비롯한 물질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든지 같은 다양한 교육활동 속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도 근본 까닭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부영 (서울강명초 교사, 『서울형 혁신학교 이야기』 저자)

청소년 문화 ⑥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자치활동 중 하나인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과제를 찾아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회참여활동이다. 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도전정신과 실천력을 기르게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시작된 변화'

모둠명 : U.S.E(Use Safety Energy)

활동주제 : Saving Energy

활동소개 :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낭비, 절약방법을 모른다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모였다. 총 8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전에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정말 처음으로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친구의 소개로 같이 시작한 모임인 '시작된 변화'는 재밌기도 했지만 귀찮고 힘들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평소 학교나 사회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며 사회를 위한 적극적이고 더 큰 범위에서의 실천방법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기대가 많이 되었다.

우선 내가 이 활동이 마음에 든 것은 우리 학생들이 계획부터 실천까지 스스로하게 된다는 점이였다. 선생님이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대가 많이 되기도 했지만, 막막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야할까? 하지만 친구들과 토의를 하며 의견을 모으니 생각보다 쉬웠고, 재미있게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해졌다. 점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설문지를 돌릴 때부터 무엇인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든 방향이 확실히 잡혔기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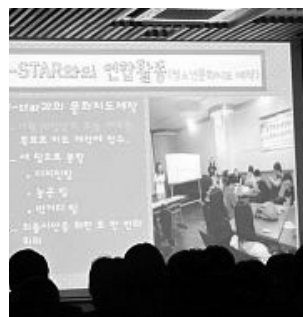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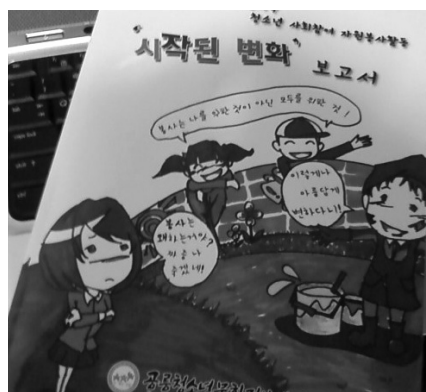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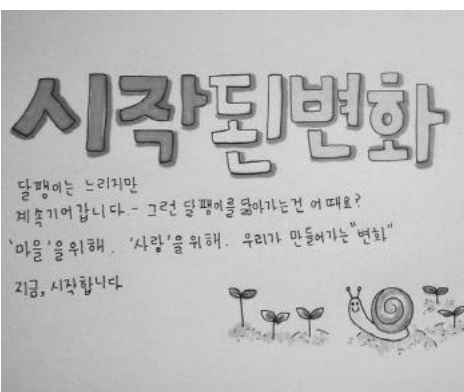
우리가 이렇게 한 일들이 비록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로인해 나 하나가 사회를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더 잘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다. 하지만, 이렇게 재미있게만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설문지 돌릴 때 창피해서 힘들었고, 백장이나 돌릴 생각을 하니 더욱 힘들어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설문지 돌린 결과를 일일이 하나하나 세려고 하니 너무 단순 노동 같아서 지루하기도 하였다. 또 컨디션이 매일 좋은 것도 아닌데, 싫어도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봉사를 하려다보니 귀찮기도 하였다. 어떨 때는 친구들끼리 단합이 잘 안 되어서 그냥 집에 간 적도 많아 아쉬웠기도 했고, 내가 폐를 끼친 적도 많아 후회되기도 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다지 이 활동에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너무 대회에만 신경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대회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닌, 대회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을을 위해 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비록 대회에서 상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통과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을을 위해 노력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대회는 상관없이 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에너지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힘들어도 마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에너지가 아닌 내년에 새로운 활동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나는 이 활동을 하며 마을이 달라지는 것도 보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도 보고, 내가 여러 경험을 통해 달라지는 것도 보았다. 마을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나에게도 많은 도움들이 되었고, 이런 기회가 앞으로 별로 없을 텐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해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는 내가 될 것이다.

이재홍 (한천중학교 3학년)



방송모니터(10)

농어촌 어르신이 자신들 사연을 연기하다

고향극장



〈고향극장(KBS1, 목(밤 10시 50분)방송)은 〈6시 내 고향〉의 한 코너로 시작되었다가 좋은 반응에 힘입어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형 드라마다. 농어촌에 사는 어르신, 이웃, 마을의 사연

을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스스로 연기한다. 캐릭터, 사연 등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드라마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 어르신들 성함과 나이, 이장 등의 직위, 마을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다큐멘터리로 착각할 소지도 크다. 두 장르를 합친 시도가 신선하게 다가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제작과 시청에 유의해야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농어촌에 사는 어르신들이 겪는 갖가지 애환, 보람을 본인들이 재현하므로 사연이 진솔하게 다가온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어느 직업군이 가장 정직한가?’ 등의 순위 조사에서 1위는 농부, 팔찌는 정치가로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는 농어촌 어르신들은 정직한 분들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실제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리도 없고, 실제와 다른 언행을 할 리도 없다는 믿음을 갖고 보게 된다. 반면에 혹 방영 이후 출연자나 마을에 대한 오해, 불이익이 없을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을 갖고 보게 된다. 따라서 제작진은 이런 후유증까지

고려하는 배려, 책임감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열혈농부 우리 동네 두 총각(6월 13일 방송) 편에서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짓겠다고 나선 귀농 3년 차, 2개월 차 총각의 좌충우돌을 재미있게 그렸다. 친환경 농법을 주장하는 두 젊은이와 이를 믿지 못하면서도 내심 기대를 거는 마을 어른들, 두 아들에게 선뜻 땅을 내주지 못하는 부모님 마음, 아침마다 선크림 바르면서 “내 얼굴이 마케팅이야”라고 하는 아들과 “네가 키운 작물이 네 얼굴이야”라는 아버지, 느린 농요대신 힙합과 사이의 노래로 흥을 돋우며 일하자는 아들과 이를 따라하다 재미를 느끼는 부모님 등 세대 간 가치관, 취향 차이를 대조시키며 두 총각의 진심이 부모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을 전한다.

어르신들의 어색한 연기를 지적하는 평도 있는데, 생전 연기해본 경험이 없는 어르신들 연기가 어색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게다. 정작 지적해야 할 것은 모든 내용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된다는 점이다. 농어촌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엔 반목하고 상처받고 실패하는 인물이나 마을이 없다. 마을 이름, 주민 이름과 나이까지 밝히고 그들이 사는 공간까지 드러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한계라 하더라도, 일괄적 해피엔딩은 지나치다. 이해하고 다독이며 살아보려 애는 쓰지만, 이러 저러한 문제는 영영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인물과 마을 이야기도 발굴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함께 답을 찾

는 피드백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

프로 작가가 써 준 내용을 지나치게 능숙한, 인물의 감정을 200% 이상 증폭시켜 전하는 연예인의 내레이션은 아마추어 드라마인 〈고향극장〉에는 과한 느낌이다. 화자로 선정된 분이 직접 내레이션까지 맡으면 더 좋겠다. 발음, 전달력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편이 더 진솔하게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한다.

농어촌 어르신들을 희화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데 열심인 분들을 만나는 놀람과 더불어, 저런 모습을 어떻게 공중파에 보여주려고 결심하셨는지, 싫어 민망하고 죄송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외출〉〈우리 마을 예체능〉〈영화가 뭐길래(8월 22일 방송) 등, 남편은 놀고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즐기려는 인물로,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잔소리 퍼부으며 홀로 중노동을 감당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인물이 이분화, 도식화되어 있기도 하다. 일이 고되니까 술을 많이 드신다는 게 현실이고 이해도 가지지만, 잦은 음주 장면은 지양했으면 한다.

여러 지적을 했지만 연예인들이 농어촌을 체험한 답시고 수선스럽게 떠드는 프로그램보다는 〈고향극장〉이 훨씬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것만은 분명하다. 일반인에게 다양한 체험과 재능 발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옥선희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운영위원)

책소개

엉터리 사학자 가짜 고대사



『엉터리 사학자 가짜 고대사』
김성태 지음, 책보세

요즘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오류투성이의 자료를 베껴 쓰고 자신의 ‘견해’를 역사로 둔갑시키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스운 상황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근대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역사를 근거 없이 주장만으로, 추측만으로 연구하거나 자신이 보고 싶은 사료만을 보고 연구하는 역사학계의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런 역사학자들의 사기극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은 낭비되고 있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에 우리 국민들은 속아오고 있었다고 고발하는 책이 있어서 소개한다.

〈엉터리 사학자 가짜 고대사〉의 저자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비전문가지만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학자들의 양심을 저버린 연구 자세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또 자칫 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학의 한 가설로 묻혀버릴, 고대사 연구의 모범이라 할 만한 윤내현 교수의 고대사 연구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그의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고대사에 대한 의문을 말끔히 씻어줄 만큼 명쾌하다.

고대사의 연구는 국내의 사료만으로는 연구하기가 힘든 분야라서 중국의 사료를 참고하여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하고 이런 검증에 고고학의 도움도 받아야하는 쉬운 연구가 아니다. 그런 연구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중국의 논리에 기대어 고대사의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학자들은 마치 일본의 논리에 봉사하는 근대 사학자들의 모습과 닮았다.

저자는 이런 역사학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전문가를 바라보는 자세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말한다. 대중이 전문가로부터 듣는 단순한 청취자나 학생으로 머무는 단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전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할 때 그들의 태도도 발전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대중의 출현은 진정한 민주사회와 복지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책이 될 것이다.

김소영 (광주지부 독서모임 회원)

사설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부의 명령은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MB정권에서도 가시화하지 않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급작스레 서두르는 이유는 현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동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노동조합법 9조 2항은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법 즉 모법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 규정이다. 이미 고용노동부 차관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근거규정 자체가 약하다”고 했다. 또한 “법률검토 결과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자칫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노동조합법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아무런 규정이 없음을 노동부도 익히 알고 있다. 현 금속노조, 공공운수 노조 등 모든 단위노조 규약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단위 노조이므로 이들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에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의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행정당국이 어떠한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고 올해 3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한국정부에게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재직자나 노동자가 아닌 사람, 퇴직자, 학생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조합원 자격 제한이 없다.

이렇듯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 명령은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다. 전교조는 설립 신고를 하고 14년간 합법 노조로 활동해 왔다. 현재 6만 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에 해직된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규약을 시정하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번 전교조 탄압은 국정원 선거개입,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공안정치이다. 이는 교육민주화운동, 노동기본권 확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전교조에 대한 공안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몸을 바친 역사를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989년 9월 22일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학부모들이 창립한 교육운동 단체로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 ★ 어린이·청소년체험활동·교사·자녀와 소통훈련·부모역할훈련
- ★ 교육과정 안내 등 새내기 학부모교실 운영·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지원
- ★ 학부모의 눈으로 교육정책 개발과 연구
- ★ 학부모를 위한 전문 상담실운영
 - 자녀인성과 진로·전입학 등 자녀교육 상담
 - 인권·체벌·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와 안전공제회 보상문제 상담
 - 학교·교사 문제·불법찬조금·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관련 상담
 - 학교폭력문제 갈등조정자 훈련 등 전문상담원 양성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은 자녀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단체의 전문성을 갖춘 국내 유일한 학부모를 위한 상담실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 되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며 우리회 활동에 동의하는 일반인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회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며 여러분의 회비가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재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출금(CMS) 이용하기

- 홈페이지(www.hakbumo.or.kr)방문. '후원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무실로 전화(02-393-8900)주시거나 출금 약정서에 가입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신한은행 100-014-533161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02-393-8900
학부모상담실 전화 상담
02-393-8980
사이버상담
<http://www.hakbumo.or.kr/학부모상담실>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박범이 창간일 1991년 5월 1일
기획위원 고경환 김은영 김정인 송환웅
이옥주 정 방 조혜옥 최주영
주 소 (우)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37-14 2층
전 화 02-393-8900 전 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amhak
트위터 @chamhak 디자인제작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박범이 수석부회장 최주영 부회장 박이선 송환웅 최선미
감사 김석순 유지숙 임명희 학부모상담실장 고유경
정책위원장 박이선 조직위원장 최향말 사무처장 이정숙
상근자 김은영 조혜옥 한분수

서울지부	010-8733-0207	지부장 강혜승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김해수
	동북부지회 02)902-9246	지회장 나명주
	서부지회 010-8913-6833	지회장 송성남
경기지부	031)864-3958	지부장 서애란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김양완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차경희
	김포지회 070-7761-9890	지회장 이정숙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이민애
	수원지회 010-2896-8400	지회장 안용정
	안양지회 010-4216-0893	지회장 김민영
	양주지회	지회장
	용인지회 010-6259-7499	지회장 임유진
	의왕지회 010-4222-3148	지회장 박향숙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강원지부(준)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장윤영
	거창지회 010-3867-6607	지회장 유수상
	김해지회 010-5040-3296	지회장 성명자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진인애
	진주지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경북지부	010-4511-9143	지부장 신현자
	경주지회 010-6266-8796	지회장 신경진
	구미지회	지회장
	상주지회 010-2276-2838	지회장 김미경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칠곡지회 010-4941-4456	최순필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전금순
전남지부	061)334-9271	지부장 이경자
	광양지회 010-8617-8201	지회장 박치현
	나주지회 061)334-9271	지회장 최정희
	목포지회 061)284-6574	지회장 김승진
	영암지회 010-4618-0962	지회장 최옥주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화순지회 010-2619-9136	지회장 문은아
전북지부	063)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충남지부	010-5420-3979	지부장 조성미
	서산태안지회 011-430-3414	지회장 이희출
	천안지회 041)548-6674	지회장 신선정
	홍성지회 010-2614-2208	지회장 김순희
광주지부	062)228-6998	지부장 임진희
대구지부	053)751-4070	지부장 오미경
부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곡선희
울산지부	052)268-0987	지부장 최선미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종
준비위원회	아산 010-7688-4660	위원장 김경숙
	전주 063-287-6070	사무국장 장아름

자문위원회 ●이규환(자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수/강영숙(배재대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영규(변호사/강지원(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권정혜(놀이 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교수/김명선(서울시 의원/김민남(전 경북대 교수/김영심(서울시교육청 장학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 국회의원)/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성열관(경희대학교수/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임교사)/송병춘(변호사)/송순재(강신대교수)/안성문(제일합동법률사무소)/이광철(민변사무처장)/이윤미(홍익대학교수)/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학교수)/전양숙(세종실리상담 소장)/정홍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최문순(강원도지사)/최현선(전 강원대학교 총장)/황수경(어린이도서관 공공교실 관장)

깨어있는 학부모, 실천하는 삶

제 2회 행복부모 아카데미



- 날 짜 : 2013년 10월 18일 ~ 12월 6일 (매주 금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장 소 : 에듀니티 (종로구 수송동 종로호수빌딩 4층)
- 수강료 : 회원 6만원, 비회원 10만원, 시민단체 활동가 8만원
- 신 청 : 선착순 30명, 신한은행 100-014-533161 참교육학부모회
- 연락처 : 02-393-8900

※ 프로그램

구분	날 짜	강 의 내 용	강 사	구분	날 짜	강 의 내 용	강 사
1강	10월 18일	교육과 인간다운 삶	도정일(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장)	5강	11월 15일	경제와 삶, 그리고 교육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강	10월 25일	교육정책, 어떻게 흘러왔나? - 한국교육정책 변천과정 -	김 용(청주교대 교수)	6강	11월 22일	학교선택제와 서열화, 무엇이 문제인가?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3강	11월 01일	한국 교육운동의 흐름과 참교육학부모회 활동의 의의	한만중(개포중 교사) 박경양(우리회 고문)	7강	11월 29일	교육예산, 제대로 쓰이나?	반상진(전북대 교수)
4강	11월 08일	권력을 쓰는 역사, 역사를 다시 쓰는 권력 - 뉴라이트의 역사왜곡,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통통성과 정체성 -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8강	12월 06일	교육복지와 지방교육자치의 현주소와 방향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바다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응원’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 자녀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직업의 50%가 사라지고, 60%는 우리 세대가 생각지도 못한 분야의 직업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미래화의 속도에 우리의 부모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그 결과, 즉 미래 세대의 미래는? 생각하기만 해도 아찔하다. 대개의 부모들이 그렇지만 부모들도 교육이 필요한데, 정작 교육은 없고 뒤쫓아 가기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이쯤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송은주 박사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아주 냉철히 그리고 면밀히 다룬다. 폭발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계몽하려 들려고도 하지 않는다. ‘팩트’의 힘에 저절로 설득이 된다. 저자의 내공이다. 송은주 박사가 수년간 고민해오거나 실천해온 바탕이 글에 듬뿍 묻어나 있다. 미래 세대의 미래는 더 이상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 이어령 초대문화부장관 추천사 중



이어령
초대문화부장관
강력 추천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지구촌 부모들의 미래 교육 트렌드
송은주 지음 | 296쪽 | 15,000원